테마칼럼 | 이호준의 눈대 | 이재강 3세상 | 방고춘에 쉼터 | 경제로 세상보기

현대판 환난상휼(患難相恤)

송기진

“법정스님은 그의 법문집 일기일회(一期一會)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적고 있다.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명제(命題)와 경구(警句)가 아닐까?”

지난 9월 23일 오후 3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는 전국 18개 은행장들이 모두 모여 정부의 지난 17일 제 31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미소(美少)금융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의결한 바 있다. 아름다운 소액대출 즉 미소(美少)금융사업에 은행권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향후 10년간 약 7천억원 상당의 휴면예금 전액을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출연함과 아울러 2012년까지 2천500억원을 추가로 동 재단에 기부키로 뜻을 모았다. 증권 유관기관에서 출연한 500억원을 포함하면 금융권에서 1조의 재원이 조성되고 재계기부금 1조원을 합치면 총 2조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저소득층,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케 됨은 물론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기회를 부여하여 고금리 부담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형 거대한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발(始發)로 이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97년 IMF사태 때 ‘금 모으기 국민운동’이 하이라이트였다면 이번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잡셰어링 운동이 집중조명을 받았다. 정부, 언론이 제창하고 금융권이 선두에 서서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켜, 공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중견기업 등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잡셰어링 즉 임금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시대적 화두(話頭)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

신규 고용창출이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전국민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KJB광주은행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전 직원 연차 휴가 50% 의무사용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에 지방은행 최초로 전격 합의하고 절감된 예산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고용 창출에 적극 활용키로 한 바 있다.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 부자집의 전통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했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했다 한다.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으며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다. 최 부자집의 1년 쌀 생산량은 약 3천석이었는데 1천석은 사용하고 1천석은 과객에게 베풀고 나머지 1천석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한다.

“돈은 하늘이 내게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무려 9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작년 10월 세상을 떠난 대만 제 2의 갑부 왕융칭(王永慶)의 말이다. 전 세계 빈민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구호단체 ‘해비타트(Habitat)’의 창설자인 밀러드 풀러의 경우 30세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지만 돈만 추구하는 삶에 환멸을 느낀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간의 삶을 반성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전 재산을 팔아 해비타트를 창설했다 한다. 서울 성북동의 그 유명한 요정 대원각 주인 김영한(金英韓) 여사는 시가로 1천억이 훨씬 넘는 대원각 전체를 기부해 길상사(吉祥寺)라는 절을 창건시킴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이크로 크레딧, 잡셰어링, 아름다운 기부문화 이 모두가 현대판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아닐까? 옛 말에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요사이도 대형할인매장 하나가 입점하면 근처 재래상점 2천 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법정스님은 그의 법문집 일기일회(一期一會)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적고 있다.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명제(命題)와 경구(警句)가 아닐까?

〈광주은행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4대강 사업으로 허리 부러지는 지자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의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준설토 처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자체의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 지경이다.

국토부는 전국 72곳의 준설토 적치장 확보 예산을 30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시 등 6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적치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추후 골재 판매 수익 등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상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이 소요되는 적치장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준설토에서 발생한 골재를 판매하려면 최소 3~5년 이상이 걸린데다 영산강 준설토의 경우 오염도가 심각해 골재나 성토로서의 재활용도가 낮아 비용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는 준설토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덤터기 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허다하다. 더욱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면서 세수가 고갈되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 국고지원도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준설토 처리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지자체 재정은 결딴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자체에 준설토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린이에게 쌀가마를 지우는 꼴이다. 이렇게 무리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어떤 후폭풍과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든지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의 득과 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韓食 세계화’ 역행하는 김치연구소 축소

제 16회 광주김치문화축제가 오늘 개막식을 갖고 오는 11월1일까지 염주종합체육관과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올해를 김치의 세계화 기반 조성 및 김치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에 그쳤던 ‘광주김치축제’를 전국 규모인 ‘광주김치문화축제’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김치연구소 사업규모와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 김치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광주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설립될 김치연구소 총사업비를 450억원에서 266억원이 삭감된 184억원으로 줄였고 운영비 20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각종 시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며 거창한 ‘한식 세계화 선포식’도 열었다.

한식 세계화의 첨병은 단연 김치다. 정부 역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김치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를 광주에 설립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김치연구소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한식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김치 담는 법의 과학화와 맛을 오래 유지시키는 기술 개발은 물론 김치 맛의 세분화 및 등급 부여 등이 김치연구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김치뿐만 아니라 간장과 고추장 등 전통식품산업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발효식품 연구도 김치연구소의 몫이다.

초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꾸준한 초밥 세계화 및 표준화 노력 덕분이었다. 한식 세계화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치연구소 설립 예산에 칼을 대는 정부 시각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식 세계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종교칼럼

김선명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 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념 삼아 달아매어 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두 복(福)과 혜(慧)의 종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어 놓은 복과 혜를 소비만 하여 다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평생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나 새로운 복과 혜는 닦을 줄 모르고 발전 없이 늘 그 모양으로 삽니다. 또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복과 혜를 장만하며 마음공부를 하며 나에게 오는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그 대부분을 정당한 세상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용하거나 허비하면 그 복을 덜어만 내므로 앞날이 볼 것 없습니다. 심신(心身)의 움직이는 수고와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과 공부 사업에 쓰는 이는 혜복이 길이 열리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아는 것 외에도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하고 싶은 것이 천 가지 만 잎사귀와 같이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보통의 범부(凡夫)들은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을 버리고 즐거운 낙도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소태산(少太山)은 지혜로운 삶의 근본은 안분(安分)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면으로 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와있는 가난과 고통을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이 더 초조해지고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태연히 감수하고 미래의 혜복(慧福)을 준비하는 것으로 희망과 낙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편안하다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마음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자유를 얻고 보면 능히 고락(苦樂)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스스로 즐기는 까닭입니다.

공자(孔子)께서 내 비록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義) 아닌 부(富)와 귀(貴)는 나에게는 뜬 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다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 마음의 행복의 잣대는 무엇인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화가 으뜸이요, 물질적 풍요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욕심에 가리어 정신의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원불교 영산교당 교무〉

기고

김재호

‘학생독립운동’은 국민운동

올 11월 3일은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불을 당겨 전국으로 확산시킨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과 1926년 6·10만세운동과 함께 국내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8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숱한 수난을 당했다. 해방 후 8년이 지난 1953년에야 ‘학생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가 1972년 유신독재가 시작되면서 기념일에서 제외됐다. 1984년 다시 부활했지만 광주의 행사에 그쳤다. 2006년에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제대로 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해마다 전국을 돌며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올해는 80주년이라는 의미에서 전국 순회개최순서를 변경해 발상지인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8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우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이틀 앞둔 휴일인 11월 1일 본 기념사업회와 광주시, 광주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가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기념일인 3일에는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의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지며,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또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교 논술경시대회가 치러지며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열린다. 전남대학교도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과 세계 각국의 학생운동과 비교연구하는 작업을 펴기로 했다.

특별한 행사로 1924년 있었던 광주고보 야구단과 일본 성인 야구단간의 경기를 85년만에 재연하는 행사가 광주일고 교정에서 열린다. 이 경기를 재연하는 이유는 당시 이 경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옥되고 제 1차 동맹휴학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1929년까지 네 차례의 큰 동맹휴학이 벌어졌고, 이런 투쟁은 결국 학생독립운동으로 발전했다. 올해 재연행사에서 광주고보 야구단은 광주일고 선수들이, 일본 성인야구팀은 선배들이 분장하게 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6세기 임진왜란 때와 20세기 초 호남에서 가장 활발히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운동이 정신을 이어받았고, 50년 뒤에는 다시 5·18 민중항쟁으로 연결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사업을 펴는 이유는 바로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해마다 기념식이 열리곤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동자의 사상적 배경을 제평가하는 작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가 박제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학생독립운동은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다. 따라서 11월 3일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서도 향토사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광주에서도 당시 5개 중등학교가 모두 참여했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5·18 기념일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의 모든 학교 학생 동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70주년 기념식 때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던 것처럼 올해도 정부의 관심과 함께 광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결핵, 발병시 제대로 치료 받아 전염 막아야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결핵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6만~7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결핵 왕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결핵 환자 3명 중 1명이 20대와 30대라고 하니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연령에서 결핵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얘기다. 폐결핵은 3~4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발병률이 높고 환자가 많은 이유는 결핵을 앓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 결핵균이 약에 내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런 독한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2, 제3의 결핵 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후진국 병인 ‘결핵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학교에서부터 철저한 교육과 경각심을 주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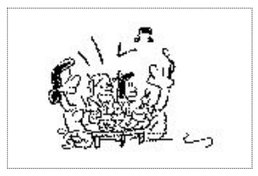
▲백은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어처구니



흔히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런데 그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궁궐 추녀마루에 장식된 ‘잡상’을 가리키는 말로 기왓장들이 궁궐공사 때 깜빡 잊고 올리지 않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어처구니가 본디 바윗돌을 부수는 농기구의 쇠로 된 머릿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며, 돌을 부수다 부러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생긴 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어원은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맷돌의 역할은 곡식을 빻는 것이므로 회전을 해야 한다. 그 맷돌을 회전시키기 위해 윗돌에 박아놓은 손잡이가 바로 ‘어처구니’다. 그런데 곡식을 갈기 위해 맷돌을 돌리려는 순간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차겠는가? 그래서 황당하고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처구니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이외수는 현대의 아버지와 맷돌의 ‘어처구니’를 오버랩 시킨다. 그는 요즈음 아버지들을 바라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다고 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끌어 가고 행복을 새겨 주어야 함에도 그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했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가 아버지를 어렵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간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란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인 것을 아버지들은 모른다.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들이다.

일이 바쁘다거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핑계에 다름 아니다. 자녀에 대한 당신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힘이 되고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생각하지 못한다. ‘어처구니 같은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지 않다. 오늘 당장 저녁 밥상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춰 대화를 시작해보자.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